‘황·소’가 달린다… 타이거즈가 웃는다

황대인·소크라테스 활약에 KIA 타선 폭발력 극대화 “우리 둘이 잘해야 우승”

KIA의 5월 반전에 타격감 끌어올린 ‘황·소’ 듀오 황대인(오른쪽)과 소크라테스가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사직 원정에서 소크라테스의 동점 홈런이 나온 뒤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 〈KIA 타이거즈 제공〉

‘황소’가 달리면 KIA 타이거즈의 승리가 온다.

KIA는 5월 뜨거운 타격을 앞세워 순위 싸움을 전개하고 있다. 달라진 타선의 중심에는 황대인과 소크라테스 ‘황소 듀오’가 있다.

황대인은 지난 시즌 경험을 바탕으로 올 시즌 1루수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황대인은 지난 4월 24경기에서 타율 0.258(89타수 23안타) 1홈런 13타점을 기록했다.

5월에는 25일 경기 전까지 19경기에서 타율을 0.333(66타수 22안타)으로 끌어올렸고, 4개의 홈런 포함 19타점을 만들었다.

소크라테스의 상승 곡선은 더 가파르다.

4월 24경기에서 타율 0.227(97타수 22안타) 1홈런 9타점에 그쳤던 소크라테스는 5월에는 가장 뜨거운 타자가 됐다.

24일 경기까지 20경기에서 타율 0.432(81타수 35안타), 4홈런 22타점을 만들었다. 17·18일 롯데 원정에서는 승리를 부르는 동점포에 이어 역전스리런까지 연달아 날리면서 ‘해결사’로 등극했다.

나란히 타석에 들어서고 있는 두 선수의 활약으로 KIA는 타석의 폭발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황대인에게는 유독 타점 기회가 많이 찾아오면서 ‘승부의 키’로 역할을 하고 있다.

실패의 순간도 있지만 승리에 필요한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LG 김현수, 삼성 오재일, SSG 크론, 소크라테스 등과 타점 3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

황대인도 팀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자신과 소크라테스의 활약이라고 말한다.

황대인은 “나랑 소크라테스랑 둘만 잘하면 된다. 타점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오고 있다. 앞에 형들이 출루를 많이 하고 있다. 뒤에서 저와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팀 순위가 달라질 것 같다”며 “소크라테스와 ‘우리 둘이 잘해야 우승한다’는 이야기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점 상황이 부담이기도 했지만 어느새 기다리는 순간이 됐다.

황대인은 “항상 부담은 된다. 안 될 수는 없다. 그래도 요즘은 기회니까 즐기려고 한다. 너무 치고 싶어서 앞에서 안타나 볼넷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며 “이런 마음을 가져야 타석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 시즌 시작하기 전부터 타점에 대한 욕심이 강했다. 홈런도 중요하지만 타점에 욕심을 내고 있다. 기회와 왔을 때 해결해야 팀이 이긴다”고 ‘타점’을 강조했다.

목표대로 타점을 쌓아가고 있지만, 갈 길은 멀다. 부상 없이 꾸준함을 유지하는 게 황대인의 목표다.

황대인은 “감독님, 코치님이 불안한 마음 갖지 말라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데 안 불안할 수 없다. 내 자리가 아니다. 누가 나가도 무조건 나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불안한 부분이 있다”며 “안아파야 한다. 기회를 주시니까 시즌 초반에 컸던 불안감이 조금은 편해지면서 5월 들어 좋아진 것 같다. 이걸 어떻게 끝까지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다. 올해는 간절함이 있다”고 말했다.

‘황소 듀오’를 구성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최고의 선수”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황대인은 “너무 좋은 선수다. 정말 열심히 하고, 팀에 대한 열정이 있다. 항상 웃는 모습이다. 외국인 선수가 그렇게 하니까 선수들도 시너지 효과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대인이 분석한 소크라테스의 반전 배경은 ‘적응’이다.

황대인은 “적응은 끝났다. 소크라테스가 100타석 보고 나서 잘 쳤다. 미국에서는 워낙 빠른 볼을 많이 봤는데, 여기 와서 변화구 많이 던지는 투수들 보니까 적응을 못 했던 것 같다”며 “원래 잘했던 선수라서 걱정 안 했다. (최)형우 선배님도 캠프 때부터 감은 안 좋았지만 에버리지가 있는 타자라고 잘할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끝까지 잘할 것 같다. 이제 여권 뺏어야 한다”고 웃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마운드는 악재…KIA 놀린 종아리 부상

한 달 공백 불가피…오늘 로니 선발

KIA 타이거즈 마운드에 악재가 발생했다. 외국인 투수 션 놀린〈사진〉이 왼쪽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빠졌다.

KIA는 25일 삼성라이온즈와의 원정경기에 앞서 놀린을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놀린은 지난 24일 훈련 도중 부상을 당했고, 검진결과 종아리 근육 파열 진단을 받았다.

회복에 3~4주 정도가 필요할 전망이라서 한 달 가량 공백이 불가피하다.

KIA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선발진의 ‘부상 로테이션’이다.

KIA는 스프링캠프에서 임기영과 이의리가 각각 옆구리 부상과 손가락 물집으로 빠지면서 ‘플랜B’를 일찍 가동했다.

이의리가 우려를 털고 정상적으로 시즌을 시작하면서 한승혁으로 5선발을 채워 시즌을 열었다.

하지만 개막 후 두 번째 경기에서 놀린이 LG 김현수의 타구에 왼 팔꿈치를 맞으면서 재활조가 됐다. 다행히 큰 부상을 피하면서 한 차례 ‘임시 선발’이 들어온 뒤 놀린이 돌아왔다.

이어 임기영이 퓨처스리그에서 복귀 움직임에 속도를 내면서 선발 완전체가 구성되는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로니 윌리엄스가 자리에서 이탈했다.

로니는 4월 28일 왼 허벅지 임파선염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고, 임기영이 대신 날짜를 앞당겨 선발진에 재합류했다.

그리고 로니가 지난 21일 ‘불펜진 과부하’로 예정과는 다르게 불펜으로 조기 합류했다. 로니가 불펜에서 페이스를 끌어올린 뒤 선발진에 가세, 마운드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에는 놀린의 부상 변수가 발생했다.

결국 로니가 놀린을 대신해 26일 바로 선발로 투입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00m 9초대 뛰면 특별포상금 2억”

대한육상연맹, 남자 육상 포상금 걸어…광주시청 김국영 건재에 비웨사·이준혁 기대

대한육상연맹은 최근 ‘남자 육상 100m 9초대 진입’에 특별 포상금 2억원을 내걸었다.

2024년 12월까지 한국 육상의 숙원인 남자 100m 10초대 벽을 깨는 스프린터는 ‘한국 최초’라는 타이틀과 함께 거액을 손에 넣는다.

‘9초대 진입’을 회의적으로 보는 전문가는 여전히 많지만 곳곳에서 조금씩 희망이 자란다.

한국 기록(10초07) 보유자 김국영(31·광주시청)이 건재하고, ‘선수 경력’이 짧은 비웨사 다니엘 가사마(19·안산시청·사진)가 김국영에게 긴장감을 안길만큼 성장했다. 여기에 이준혁(21·한국체대)이 ‘9초대 레이스’ 도전에 가세했다.

이준혁은 24일 익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77회 전국대학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0m 결선에서 10초18로 우승했다.

고(故) 서말구 해군사관학교 교수가 1979년 9월 9일 멕시코시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세운 10초34를 43년 만에 경신한 ‘한국 대학생 신기록’이었다.

10초18은 선수 기준 한국 역대 2위, 모든 기록 기준 공동 5위이기도 하다. 이준혁이 레이스를 마치기 전까지, 한국 육상 100m 1~15위 기록은 모두 김국영이 보유했다.

김국영은 19세 때부터 육상 단거리 불모지 한국을 대표하는 스프린터로 살아왔다.

그는 2010년 10월 7일 대구에서 열린 전국육상선수권대회 남자 100m 예선에서 10초31로 서말구 교수의 종전 한국기록(10초34)을 31년 만에 바꿔놨다. 준결선에서 10초23로 새로운 한국기록을 세웠다.

김국영은 2015년 7월 9일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10초16으로 자신과 한국 기록을 단축했다.

2017년 6월 25일 정선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BS배에서는 10초13으로 기록을 경신하더니, 6월 27일 같은 장소에서 치른 코리아오픈 국제육상경기 100m 결선에서는 10초07로 개인 다섯 번째 한국 신기록을 세웠다.

김국영은 국내외 대회에서 10초07부터 10초26까지, 다른 한국 스프린터가 넘볼 수 없는 기록을 작성했다.

24일 경기 전까지 개인 최고가 10초40이었던 이준혁은 단숨에 10초18로 기록을 단축하며 이규형(10초27)을 넘어 한국 역대 2위 스프린터로 도약했다. 모든 기록을 나열하면, 김국영의 10초07, 10초12, 10초13, 10초16에 이은 공동 5위 기록이다.

‘실업 1년 차’ 비웨사의 개인 최고 기록은 10초44다. 비웨사는 4월 19일 대구에서 열린 종별선수권에서 10초42로 우승한 김국영과 치열한 접전을 펼치며 10초44로 2위를 차지했다.

당시 김국영은 “국내 경기에서 최종 기록이 나올 때까지, 초조하게 기다린 게 정말 오랜만이었다. 그만큼 좋은 후배가 나왔고, 성장했다”고 말했다.

비웨사는 콩고인 부모를 뒀지만,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이다. 중학교 3학년 때 한국 국적을 얻은 비웨사는 원곡고로 진학해 ‘전문 육상 교육’을 받았다.

오랫동안 변방에 머물던 한국 육상은 필드 종목인 높이뛰기에서 우상혁(26·국군체육부대) 세계 최정상급 선수로 도약해 중심부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연합뉴스

히딩크 감독님, 20년 만입니다

한일 월드컵 20주년 기념 내달 5일 서울서 ‘올스타전’ 박지성·이영표 등 레전드팀 감독 맡아…상대는 U-14

거스 히딩크(76·사진) 전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영웅들을 이끄는 모습을 6월에 다시 보게 됐다.

대한축구협회(KFA)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평가전 4연전을 치르는 6월 A매치 기간 중인 1~6일을 ‘2022 KFA 풋볼페스티벌-서울’ 주간으로 정하고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를 연다. 히딩크 전 감독도 오랜만에 한국을 찾아 각종 행사에 참석한다.

히딩크 전 감독은 그간 개인적으로 한국을 몇 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거스히딩크재단 업무차 방한했던 2018년 2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입국해 내달 7일까지 열흘간 한국에 머무는 히딩크 전 감독은 6월 5일, 20년 전으로 돌아가 제자들을 ‘지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갖는다.

KFA가 이날 오후 3시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2002 레전드 올스타전’을 여는데, 이 경기에서 히딩크 전 감독이 ‘2002 레전드 팀’ 감독으로 직접 나선다.

정해성 전 호찌민시티 감독이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코치로 히딩크 전 감독을 보좌한다.

선수 면면은 화려하다. 한일 월드컵 뒤 에인트호번(네덜란드)에서 인연을 이어갔던 박지성 전북 현대 어드바이저, 이영표 강원FC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병지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이천수 등 2002년의 영웅들이 8대 8경기의 ‘선수’로 출전한다.

상대는 KFA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인 ‘골든에이지’ 과정에 있는 14세 이하(U-14) 선수들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주들에게 월드컵 4강에 오른 ‘전설의 팀’을 상대하는 경험을 선사한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있다.

그러나 KFA가 어린 선수들을 ‘히딩크호’의 상대로 결정한 ‘진짜 이유’는 2002년 영웅들 대부분이 40세를 훌쩍 넘겨 제대로 축구 경기를 소화할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3일에는 KFA 콘퍼런스에 참가해 한국 지도자들에게 선수 지도의 노하우를 전수한다.

KFA 관계자는 “히딩크 전 감독이 사실상 이번 풋볼 페스티벌의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